

고려대 2020 입학 설명회 현장 ① 

##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방식 고수, 정시 소폭 늘어

지난 4월 13일, 고려대는 진로진학콘서트에서 2020학년 입학 전형과 함께 2019학년 입시 결과를 발표했다. 2020학년 입학 전형은 전년과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지만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 면접 방법 변화와 추천서 제출 여부, 특기자 전형 인원 축소 및 정시 인원 소폭 확대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2019학년 입학 결과는 합격자들의 지원 패턴과 입학 성적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가장 주목을 끌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1학년 학생 4명의 토크콘서트 등 신선한 기획이 돋보인 고려대 진로진학콘서트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취재·사진 조진경 리포터 jinjing87@naeil.com



### 일부 전형에서 추천서 폐지, 면접 간소화

고려대의 2020학년 전체 선발 인원은 정원 외 인원을 포함해 4천84명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수시 일반 전형과 특기자 전형의 선발 인원이 감소했고 정시 일반 전형의 선발 인원이 조금 늘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수시 일반 전형에서 1천188명을 뽑고, 특기자 전형은 421명을 뽑는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19명과 36명이 감소한 수치다. 반면 정시 선발 인원은 612명에서 670명으로 소폭 늘었다. 2019학년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한 인원이 25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시 선발 인원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추천 전형과 기회균등 전형의 선발

인원은 2019학년과 동일하다(그래프).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추천 I 전형에서 필수로 제출했던 추천서가 폐지되고 학교추천 II 전형과 기회균등 전형, 특기자 전형에서는 선택 제출로 바뀌었다. 이들 전형에서는 추천서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참고로 수시 일반 전형은 이전부터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4%까지 추천할 수 있는 학교추천 전형은 면접 반영 방법에 변화가 있다. 교과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100%로 선발하던 학교추천 I 전형은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 면접 50%로 변경됐다. 인재발굴처 양찬우 처장은 “면접의 반영 비율이 줄기는 했지만 1단계 통과자의 내신이 훌륭해 면접은 여전히 영향력이 크다. 또 학년별 반영 비율이 20%, 40%, 40%이므로 3학년 1학기 성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부 면접과 제시문 면접을 분리해 2단계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추천 I 전형과 달리 학교추천 II 전형에서는 제시문 기

반 면접과 학생부 기반 면접을 통합해 일괄 면접으로 간소화했다. 일반 전형의 면접은 이전과 같이 10분 동안 간단한 한두 개의 제시문을 읽고 한두 개 질문에 대답하는 일괄 면접 방식을 유지한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다. 전형별, 계열별로 기준이 다르니 전형 안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탐구 과목을 일반 전형은 2개 과목 중 상위 1과목의 등급(의대는 2개 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반면, 학교추천 전형은 2개 과목 평균 등급으로 반영한다는 점도 유의하자.

### 1단계 통과+최저 기준 충족하면 실질 경쟁률 푼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부분은 2019학년 입시 결과였다. 하지만 지난 결과를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재발굴처 최인식 부장은 “교과 성적과 경쟁률 추이, 충원율 등은 매년 바뀌는 데다 정작 인재발굴처에서도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반신반의할 때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전형별 경쟁률과 면접 응시자 최저 기준 충족 비율, 실질 경쟁률, 충원율 등은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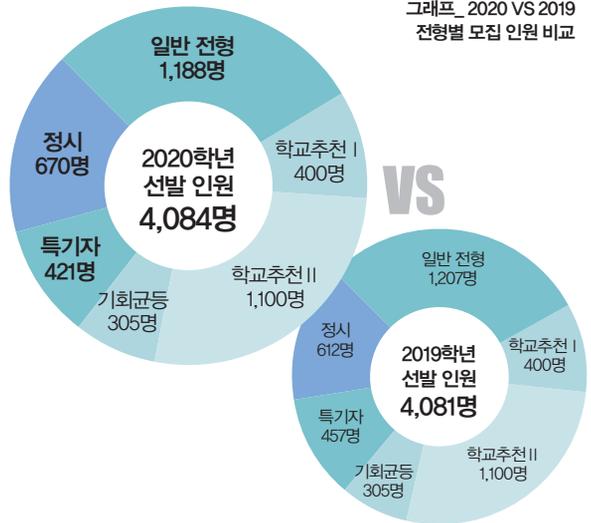
교과 전형인 학교추천 I 전형은 1단계를 통과하고 최저 기준을 충족하면 실질 경쟁률은 1.76:1로 떨어져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이다. 하지만 최저 기준을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다. 4개 영역 등급 합 5로 높은 기준을 내건 의대의 충족률은 29.2%에 불과했다. 합격자 평균 교과 등급은 1.0~1.5등급 사이. 합격자의 99% 정도는 일반고 출신이었다.

학교추천 II 전형의 경쟁률은 7.27:1. 1단계를 통과하고 최저 기준을 맞추면 실질 경쟁률은 2.61:1로 내려간다. 평균 충원율은 84%다. 자연 계열을 예로 들면 의대가 103.1%로 가장 높고 공대가 74.4%로 가장 낮았다. 합격자의 교과 등급 평균은 의대가 1.2등급, 다른 단과대는 1.5~1.8등급이었다.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일반 전형의 합격자 교과 등급 평균은 학교추천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 1.3등급

인 의대를 제외하고 대체로 2등급에서 3등급 초반에 걸쳐 있다. 외고·국제고는 30%, 자사고는 23%, 과고·영재고는 0.8%, 일반고는 46% 학생이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다.

특기자 전형은 충원율과 특목고의 합격 비율이 높은 전형이다. 합격자 교과 등급 평균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자연계는 4등급 초반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다른 대학과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 자연 계열의 경우 충원율이 300%를 넘기도 한다. 인문 계열에서는 외고·국제고의 합격 비율이 80%, 자연 계열에서는 과고·영재고의 합격 비율이 90%를 넘는다. 수사에서 258명이 이월돼 870명을 선발한 정시 전형에서 재학생의 합격 비율은 38%, 졸업생은 62%에 달했다. 고려대는 확정된 2020학년 모집 요강을 4월 말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5월 중순부터는 일대일 상시 상담을 시작할 계획이므로 자주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좋다. @

그래프\_ 2020 VS 2019  
전형별 모집 인원 비교



표\_ 2019학년 수시 전형별 입시 결과

전형명	경쟁률	최저 기준 충족률(%)	실질 경쟁률	충원율(%)
학교추천 I 전형	3.49	63.6	1.76	61.5
학교추천 II 전형	7.27	70.8	2.61	84.3
일반 전형	10.77	59.9	1.98	43.8
특기자 전형(인문)	8.48	-	4.95	137.9
특기자 전형(자연)	9.44	-	4.85	243.1